



대한노인정신의학회보

Korean Association for Geriatric Psychiatry of Newsletter

발행인 : 조맹제 / 편집인 : 김기웅 / 발행처 : 조맹제 (110-744)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01(연건동 28) 서울대학교병원 정신과 / TEL : 02-2072-3155, / FAX : 02-744-7241
발행일 : 2011년 4월 6일 / 제 작 : (주)엠엘커뮤니케이션 140-846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동 12-15 / TEL : 02-717-5511 / FAX : 02-717-5515

Contents

- 02 | 권두언
- 04 | 학술 활동 소식
- 07 | 공지 사항
- 08 | 해외학회 참관기
- 10 | 학술대회 안내
- 12 | 회원동정
- 14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임원진

| 권 두 언 |

우리 함께 효도해요



아주의대 정신과 부교수
수원시 노인정신보건센터장
홍 창 형

고령사회를 맞이하면서 노화로 인한 각종 노인병, 사회적 역할 감소로 인한 소외, 우울, 빈곤 등은 시급하게 해결 해야 할 노인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미 고령사회에 접어든 다른 선진국의 선례를 통해 노인 문제를 제때 해결하지 못하면 덧없이 쇠락의 길로 빠질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미 고령화 사회를 지나쳤고 2050년에는 전체 인구 열 명 중 네 명이 노인인구가 된다고 하니 지금부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바야흐로 노인 문제해결이국가의 최우선 정책과제가 된 것입니다.

노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정신과 의사의 입장에서 문화적 방법을 통한 해결법을 제안합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효 사상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비록 점차 전통적 효 의식이 약화되곤 있지만 한국인처럼 어려서부터 효 사상에 대해 많이 배운 민족은 없습니다. 서양인에 비해서 소위 선행학습이 잘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효도처럼 말하기 쉽지만 지키기 어려운 것이 없다는 점입니다. 저부터 가슴에 손을 얹고 부모님께 매일같이 열심히 효도하고 있다고 물어본다면 당당하게 고개를 들기 어렵습니다. 전통적 의미의 효사상이 너무 무겁고 어렵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나라 국민들 마음속에 면면히 흐르는 효 사상을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해서 문화운동으로 만든다면 어떨까요? 유교에서 효는 대효(大孝), 중효(中孝), 소효(小孝)로 구분됩니다. 즉, 부모를 모심에 있어서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을 대효, 부모를 욕되지 않게 하는 것을 중효, 물질적인 봉양을 소효로 여깁니다. 또한 효는 양지(養志)의 효와 양구체(養口體)의 효로 나눠지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뜻을 받들어 정신적으로 편안하게 모시는 것이 양지의 효라면, 물질적으로 봉양하는 것이 양구체의 효입니다. 공자는 양지의 효가 양구체의 효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효도라고 하면 물질적인 봉양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충분히 물질적으로 봉양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며 효도는 어려운 것이라고 여깁니다. 그리고는 어렵기 때문에 효도는 멀리해도 된다고 생각하거나 사랑은 역시 내리사랑이라고 자기를 합리화시킵니다. 그런데, 전통적으로 어렵게만 생각해왔던 효 사상을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하여 상대적으로 실천하기 쉬운 대효와 양지의 효를 강조하면 어떨까요?

수원시 노인정신보건센터는 2008년부터 111 플러스 운동이란 효 사상 실천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전국적으로 8만 명에게 홍보하였으니 이미 내용을 아시는 분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1주일에 한 번 이상 부모님과 전화 통화를 하고, 1개월에 한 번 이상 부모님과 식사를 하고, 1년에 한 번 이상 부모님과 나들이(소풍)을 하자는 캠페인입니다. 플러스란 결혼을 한 경우는 시댁만 하면 불공평하니까 처가도 함께 하자는 의미입니다. 먼저 의사소통과 만남이 있어야지만 대효와 양지의 효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 있다면 큰 돈 들이지 않고 지킬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캠페인을 통해 부모-자식, 조부모-손주간 의사소통이 많아지게 될 수록, 부모님이 어디가 불편하고 힘든지 빨리 발견할 수 있게 되어 조기개입이 가능합니다. 노인의 경우 자식들이 걱정할까봐 온 몸이 다 망가진 후에야 큰 병이 생겼다는 것을 나중에 자식에게 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알에 100원짜리 아스피린 한 개면 예방할 수 있는 뇌졸중을 전조증상이 있고 난 후 점차 진행이 되어 반신불수가 될 때까지 자식들에게 숨긴 사례를 보았습니다. 우울증 약 하나로 남은 인생을 활기차게 지낼 수 있는 것을 자살로 생을 마감한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셈입니다. 국민 보건 의 입장에서 노인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조기에 개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권 두 언 |

수원지역 지역사회 노인 1,0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1주일에 한 번도 부모님께 전화하지 않는 집단을 기준으로 할 때, 전화 횟수가 증가할수록 부모님의 인지기능(K-MMSE)은 증가하고, 우울감(SGDSK), 불안감(BAI), 수면장애(PSQI)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지, 전화만 자주 하더라도 부모님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셈입니다. 전화 한 통화로 부모님의 신체적, 정신적 불편감을 조기에 덜어드릴 수만 있다면 정말 큰 효과를 하는 셈입니다. 전화 뿐 아니라 부모님과 함께하는 식사와 나들이(소풍)도 정신건강증진과 관련성이 유의하게 나타났습니다.

효 사상 실천을 너무 강조하면 자식이 없는 독거노인은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끼지 않겠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효 사상은 부모 자식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의 보편적인 윤리로 존재하며, 인간관계 전반에 대한 것이란 것을 이해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퇴계와 율곡은 인간 사회에서 모든 질서의 근원은 효에서 출발하며 생명의 근본인 부모를 사랑할 수 있어야 타인도 사랑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부모에 대한 효도는 이타주의의 시작이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 노인을 공경하는 근본이기도 합니다. 자원봉사 조직과의 결연사업을 통해 독거노인들에게도 111플러스 운동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고령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개호보험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중기 및 말기단계 노인들을 위한 요양에 치중하다가 막대한 재정 적자가 발생하자 예방과 조기개입을 강조하는 쪽으로 결국 법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자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 새삼 천금만큼의 무게로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오늘 저녁 부모님께 전화 한 통화 어떨까요? 그리고 일정표에 부모님과 함께 점심식사 일정, 나들이 일정을 잡아보면 어떨까요? 111플러스 운동과 같은 실천 가능한 효도를 통해 부모님과 지역사회 노인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 학술 활동 소식 |

- 2010년도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추계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

일 시 2010년 11월 19일 (금) 09:30 ~ 18:00
 장 소 삼성서울병원 본관 지하 1층 대강당 및 중강당 (1,2)
 주 최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평 점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4점 / 노인정신건강 전문과정 (예정) 이수평점 15점

09:00-09:30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등록

■ 연수교육

사회: 김어수 (총무간사)

치매환자 진료를 위한 임상술기 훈련 (신경심리학적 진찰술기)

좌장: 신영민 (북부노인병원), 이창욱 (가톨릭의대)

09:30-10:00	치매선별검사	유승호 (건국대)
10:00-10:30	치매임상단계평가	강효신 (성균관대)
10:30-11:00	종합적인지기능평가의 판독	홍창형 (아주대)
11:00-11:30	신경심리검사 판독연습	배재남 (인하대)
11:30-11:50	Q & A	
11:50-13:00	Luncheon Break	

■ 추계학술대회

사회: 김어수 (총무간사)

13:00-13:10 Opening 오병훈 (이사장)

Oral Session : 노인정신의학을 전공하는 한일 청년연구자들의 최근 결과물

좌장: 박중환 (대구가톨릭대) / 오병훈 (연세대)

13:10-13:25	Dementia patients treated in the psychiatric ward of a Japanese general hospital	Keiichiro Nishida (Kansai Med University)
13:25-13:40	A role of E2-25K in amyloid neurotoxicity of Alzheimer's disease	김태인 (서울대 생명과학부)
13:40-13:55	The effect of cognitive training on elderly Japanese by ADAS from single-blind multi-center RCT	Noriyuki Hayashi (Osaka University)
13:55-14:10	Altered brain white matter abnormal integrity in carriers of the APOE epsilon4 allele with treatment remitted late onset depression : A risk for AD?	임현국 (가톨릭대)
14:10-14:25	Coffee Break	

| 학술 활동 소식 |

“New Concept and New Findings for the Evaluation of Dementia”

좌장: 정인과 (고려대) / 이정호 (인제대)

14:25-14:50	New concept and new findings for the evaluation of AD and MCI	이동영 (서울대)
14:50-15:15	New concept and new findings for the evaluation of VCD and VaD	이재홍 (울산대)
15:15-15:40	New concept and new findings for the evaluation of DLB and FTLD	김도관 (성균관대)
15:40-15:55	Q & A	
15:55-16:10	<i>Coffee Break</i>	

“Advances in Treatment of Dementia”

좌장: 조맹제 (서울대) / 연병길 (한림대)

16:10-16:35	Prescription strategy for the patients with memory impairment	한창수 (고려대)
16:35-17:00	Treatment of BPSD	이창욱 (가톨릭대)
17:00-17:25	Current CPG for the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dementia	이영민 (부산대)
17:25-17:40	Q & A	
17:40	Closing	
17:40-18:20	General Assembly of KAGP	

| 학술 활동 소식 |

- 제2차 치매 진료 의사 전문화 교육 -

일 시 Part 1 2010.8.28 (토) ~ 8.29 (일) / Part 2 2010.9.11 (토) ~ 9.12 (일)
장 소 인제의대 부산캠퍼스 1층 대강당 (부산백병원 내)
주 최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대한치매학회
후 원 보건복지부

8월 28일(토)

08:30-09:00	등록 및 접수	
09:00-10:00	치매의 사회적 중요성	하 진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10:00-11:00	뇌의 구조와 기능 I	양동원 (가톨릭의대)
11:00-12:00	뇌의 구조와 기능 II	양동원 (가톨릭의대)
12:00-13:00	점심식사	
13:00-14:00	뇌영상의 기초	한설희 (건국의대)
14:00-15:30	치매란 무엇인가?	이동우 (인제의대)
15:30-17:00	치매를 어떻게 진단하는가?	김상윤 (서울의대)
17:00-18:00	질의 및 응답	

8월 29일(일)

08:30-09:00	등록 및 접수	
09:00-10:00	치매의 감별진단	김성환 (동아의대)
10:00-12:00	인지기능평가 워크숍: 강의 및 비디오 실습	윤보라 (건양의대)
12:00-13:00	점심식사	
13:00-15:30	행동심리증상 심망	한명일 (마음사랑병원)
15:30-17:00	일상생활기능 평가 및 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워크숍 : 강의 및 비디오 실습	강희영 (경상의대)
17:00-18:00	질의 및 응답	

9월 11일(토)

08:30-09:00	등록 및 접수	
09:00-10:30	치매단계(GDS)평가 워크숍: 강의 및 비디오 실습	홍창형 (아주의대)
10:30-12:00	경도인지장애	박경원 (동아의대)
12:00-13:00	점심식사	
13:00-14:00	치매의 치료	김영훈 (인제의대)
14:00-15:30	치매관련제도	한일우 (용인효자병원)
15:30-17:00	치매와 관련된 법적인 문제	최상섭 (국립법무병원)
17:00-18:00	질의 및 응답	

9월 12일(일)

08:30-09:00	등록 및 접수	
09:00-10:30	증례분석 및 치료계획수립 실습(1)-AD	이영민 (부산의대)
10:30-11:15	증례분석 및 치료계획수립 실습(2)-VD	권재철 (창원파티마병원)
11:15-12:00	증례분석 및 치료계획수립 실습(3)-Dementia with BPSD	신일선 (전남의대)
12:00-13:00	점심식사	
13:00-14:00	증례분석 및 치료계획수립 실습(4)-FTD	김은주 (부산의대)
14:00-17:00	시험	
17:00-18:00	수료식 및 맺음말	

| 공 지 사 항 |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노인정신건강 인증의 수련병원 -

» 공 지 사 항

2011년 노인정신건강 인증의 수련병원이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노인정신건강 인증의 관리위원회에서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공지합니다.

해당 병원 수련책임자께서는 향후 인증의 교육 및 수련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길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김재진
강북삼성병원	오강섭
경희대학교병원	송지영
세브란스병원	김어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	임원정
중앙대학교병원	기백석
충북대학교병원	이상익
한양대학교구리병원	박용천

※ 이상 가나다 순, 괄호는 수련책임자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수련이사 홍 창 형

| 해외학회 참관기 |

2010년 International Meeting of International Psychogeriatric Association을 다녀와서...

충남대학교 정신과 김정란

2010년 초에 IPA가 “Santiago de Compostela”에서 열리는 것을 알고 마음이 동요하였다. 여러 사람들에게 ‘순례자의 길이 끝나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지도에서 찾아보니 스페인이 위치한 이베리아 반도 북서쪽 끝에 있다. 아주 먼 곳이지만, 그래도 한 번 가보고 싶었다.

마침 IPA의 학술대회 기간이 우리나라 추석 연휴 다음이라서 스페인 남부 여행을 함께 할 수 있었다. 아주 매력적인 작은 도시 코르도바, 스페인 전성기의 수도였던 세비아, 그리고 이슬람 시대의 유적들이 많은 그라나다를 거쳤다. 그런 도시들보다 마드리드의 프라도 미술관에 더 흥분되었다. 2006년 ICAD 때는 학술대회 일정이 촉박하여 프라도 미술관의 그림들을 여유있게 보지 못한 아쉬움이 남아있었다. 산티아고로 들어가지 전에 마드리드를 경유해야 되었기 때문에 프라도에 갈 생각으로 내심 기뻐다. 아침부터 서둘러 프라도에 들어갔고, 바로 고야의 그림을 보러갔다. 전공의 1년차때 받았던 러시아 사람이 알코올 금단 섬망 동안에 ‘무섭다. 고야의 그림이 보여서 무섭다’고 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에는 나의 무지함으로 인하여 그가 무서워하는 이유를 몰랐다. 고야는 궁정화가로 시작하여 점차 자신의 그림 세계를 만들어 갔고, 후기에는 청각 장애와 반도전쟁(스페인과 프랑스 사이의)으로 인한 잔혹함을 경험한 뒤로 “검은 그림”을 그렸다. 그 검은 그림들을 보고 나서야 러시아 사람의 무서움을 이해하게 되었다. 고야는 예술가가 생활을 하기 위하여 겪었던 현실과 창조의 갈등을 때로는 유머로, 때로는 비틀림으로 표현하였다. 청각 장애로 인한 편집증과 전쟁으로 죽어갔던 자국민에 대한 인간애 사이에서 고통을 견디어내었던 고야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다.

학회 준비를 하면서, 산티아고 호텔 예약이 어려워 애를 먹었는데, 산티아고에 들어가 수많은 인파를 보고 실감이 들었다.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상점 점원에게도 묻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았다. 본래 산티 아고는 예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한 곳이고,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2010년을 야고보 성인의 성년 선포를 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많은 카톨릭 신자들이 죄를 용서받고 은혜를 받기 위해 다른 해보다도 방문이 많아졌다고 한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IPA는 개최되었다.



| 해외학회 참관기 |



산티아고 대성당

학술대회 전 2일은 Premeeting workshop이 있었다. 이 중 “Neuroimaging in Dementia Workshop”에 참석하였는데, John B'Brien이 워크숍을 진행하였고, 약40여명이 원형 테이블에 앉아서 치매에서 CT, MR, PET, SPECT 등의 기초 지식과 몇 가지 Rating 방법을 배운 후에 함께 rating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서로의 의견을 제시하는 방식이라 흥미로웠다. 학술대회 동안에는 노인에서 ECT 적용, 섬망, 노인 우울증의 예방과 치료, 노인 정신의학의 패러다임 전환, 기억력 장애 클리닉 소개, BPSD 개정판 설명, Bob Dylan의 나이들과 창조, 윤리 등을 선택하여 강의를 들었다. 2005년 IPA 참석 후 두 번째라서 학술대회의 내용면에 대해서는 모두 파악이 되지 않았지만, 개최지를 순환하면서 개최국의 활동을 고려해주는 것 같았다. 다만, 어떤 심포지엄은 발표 내용이 5분도 안 되는 연자가 포함되거나 하는 점을 보면 보완해야 할 면도 있어보였다. 치매에 관련되어 IPA의 큰 업적은 BPSD 매뉴얼 개발 이다.

이번에 개정 작업을 하여 개정판을 보급할 계획을 설명하였는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다고 한다.

그리고, 이번에는 IPA 본 학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기 위해 정인과 선생님, 한창수 선생님, 신영민 선생님 등 노인정신의학회 임원들이 참석하셨는데, 노인정신의학회의 발전이 느껴져 가슴이 벅차기도 하였다.

학술대회 장소가 산티아고 대성당 옆이었기 때문에 강의 중간에 오래된 도시를 거닐어보기도 하고, 40여일 간의 순례자의 길을 마치고 온 전세계 사람들의 다양한 표정들을 볼 수 있었다. 성당 안에는 치유를 소망하는 노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또는 가족들의 부축을 받으면서 미사에 참석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 표정에서 삶에 대한 집착보다는 거룩함이 느껴졌다. 이번 IPA는 구체적인 지식을 많이 얻지는 못했지만, 장소가 주는 특별한 의미 때문에 오래 기억될 것 같다. 마지막으로, 돌아오는 날 스페인 총파업으로 한국 선생님들께서 무척 고생을 하셨는데, 저만 무사히 귀국하여 송구한 마음을 이 글에 대신 전하고 싶다.

| 학술대회 안내 |

- 2011년도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

초대의 글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번 춘계학술대회에서는 치매예방을 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고령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이미 10% 이상이 되었고, 노인 진료비가 전체 진료비의 30%를 상회 하였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치매의 예방과 치료 및 관리는 개인이나 가족 만의 문제에서 사회적, 범국가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치매는 고령화에 절대적으로 비례하여 유병률이 증가되므로 지금부터 빨리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정신과 의사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 하며, 우리 모두는 이문제의 해결에 적극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아직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치매 예방의 최신지견을 섭렵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전 연수강좌는 정신과 의사로서 알아야할 노년기의 중요 신체 질환에 대한 고찰을 하고자 합니다.

훌륭한 연자 분들을 모셨습니다.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부담 없이 참석하여서 노인들의 신체질환과, 치매예방에 대한 강의와 토론의 장에서 활발한 논의의 시간을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 3월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이사장 조 맹 제

- 일 시 2011년 4월 29일 (금) 09:30~18:30
- 장 소 건국대학교병원 지하3층 대강당
- 주 최 대한노인정신의학회
- 평 점 대한의사협회 연수평점 4점 / 노인정신건강 전문과정 (예정) 이수평점 15점

등록비	사전등록	현장등록
정회원 전문의	40,000원	50,000원
비회원 전문의	50,000원	60,000원
노인정신건강 인증의	30,000원	40,000원
정신과 전공의 및 군전문의	20,000원	30,000원
간호사, 심리학 전공자 및 기타 분야 전공자	20,000원	30,000원
평생회원	면 제	

- 사전등록 마감일: 2011년 4월 25일 (월)
- 사전등록 방법: 본인 이름으로 입금 후 홈페이지 (www.kagp.or.kr)에 등록 (평생회원은 등록만 하시면 됩니다.)
- 입금계좌 신한은행 100-027-089213 (예금주: 대한노인정신의학회 / 문의: 총무간사 전홍진 kagp@hanmail.net)

| 학술대회 안내 |

2011년도 대한노년정신의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프로그램 일정

09:30-10:00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등록

■ 연수교육

사회: 이동영 (교육이사)

정신과의를 위한 노년기 주요 신체 질환의 치료와 관리기법 강좌

제1부: 노년기 주요 내과 질환

좌장: 이창욱 (가톨릭의대)

10:00-10:20 고혈압의 치료와 관리

김광일 (서울의대 내과)

10:20-10:40 당뇨병의 치료와 관리

정혜승 (서울의대 내과)

10:40-11:00 고지혈증의 치료와 관리

김병옥 (인제의대 내과)

11:00-11:10 Q & A

11:10-11:20 휴 식

제2부: 노년기 주요 신경 및 관절 질환

좌장: 정인과 (고려의대)

11:20-11:40 뇌졸중의 치료와 관리

김한영 (건국대의대 신경과)

11:40-12:00 파킨슨병의 치료와 관리

이지영 (서울의대 신경과)

12:00-12:20 노년기 관절 질환의 치료와 관리

정선근 (서울의대 재활의학과)

12:20-12:30 Q & A

12:30-13:50 점심 식사

■ 춘계학술대회

사회: 유승호 (학술이사)

13:50-14:00 개회사

조맹제 (이사장)

치매 예방의 최신지견

1부: 치매예방과 생활방식의 조절

좌장: 오병훈 (연세의대), 정한용 (순천향의대)

14:00-14:25 식이습관의 조절

백현욱 (분당제생병원 내과)

14:25-14:50 운동 및 신체활동

진영수 (울산의대 건강의학과)

14:50-15:15 인지적 활동

유승호 (건국의대)

15:15-15:40 생활방식에 대한 전반적 개입

홍창형 (아주의대)

15:40-16:00 토 론

16:00-16:20 Coffee break

2부: 치매예방과 위험요인의 조절

좌장: 조맹제 (서울의대), 김도관 (성균관의대)

16:20-16:45 혈관성 위험요인의 조절

박문호 (고려의대 신경과)

16:45-17:10 우울증과 치매

박준혁 (제주의대)

17:10-17:35 수면장애와 인지기능

신홍범 (코모키수면센터)

17:35-18:00 알코올과 인지기능

김대진 (가톨릭의대)

18:00-18:20 토 론

폐 회

이동우 (총무이사)

| 회원동정 |

» 서만길 회원

군에서 2009년 4월에 중령 전역한 이후 지방공사 충남 홍성의료원 정신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김지관 회원

2010년부터 대구 효연 2동의 대동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정성호 회원

1년간 삼성서울병원에서 임상강사로 근무하다가 2011년 3월부터 부산 대연동의 'BH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김기웅 회원

김기웅 회원이 책임연구자로 수행중인 한국인의 건강과 노화에 대한 전향적 연구(Korean Longitudinal Study on Health and Aging; KLOSHA)에 대한 제 1회 심포지엄이 2011년 3월 11일에 분당서울대학교 병원에 개최되었고, 본 심포지엄에서 한국인의 건강과 노화에 대한 전향적 연구의 현재의 미래에 특강을 하였습니다.

학회 가입 및 회비납부 안내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에서 "입회원서"를 내려 받아 작성 한 후 이동우 총무이사 (전화: 02-950-1087, 팩스: 02-936-8069, E-mail: kagp@hanmail.net) 에게 보내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회비 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입금 후 이메일 (kagp@hanmail.net) 부탁드립니다.

- 입회비 : 2만 원
- 연회비 : 3만 원
- 평생회원 회비 : 50만 원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온라인 계좌번호 : 우리은행 : 1006-801-243564 예금주 : 대한노인정신의학회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사무실

130-070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9-2 LG서초애클라트 1520호

• 전화: 02-6203-2595 • 팩스: 02-6203-2595 • E-mail: kagp@hanmail.net

노인정신의학 논문 투고 안내

• 일반사항

1. 투고규정의 일반 원칙은 대한 신경정신 의학회지의 투고규정에 준합니다.
2. 투고자격 : 본 학회 논문과 편집위원회에서 의뢰 되었거나 인정된 논문으로 합니다.
3. 원고의 종류 및 분량: 논단 (특별기고)과 특집은 10쪽, 종설과 원저는 8쪽, 증례보고 및 임상 단보는 4쪽, 서평은 2쪽 이내로 합니다. 편집인의 글 / 편집인 에게 보내는 글은 본문 2쪽 이내와 참고문헌 10개 이내로 작성합니다. 표와 그림은 합해서 하나까지만 가능하고, 독자는 "편집인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문의나 추가를 할 수 있고, 저자 또는 편집자는 이에 대한 의견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4. 다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은 투고할 수 없습니다.
5. 학회지는 매년 6월과 12월에 발행하며, 원고의 마감은 4월말일 (6월분)과 10월말일 (12월분)까지 입니다.

• 논문접수처

대한노인정신의학회 학회지 간행위원회 / 학회지 간행위원장 : 김성윤

보내실 곳: 정찬승 (간행간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상하동 17번지 경기도노인전문용인병원 정신과 정찬승

우편번호: 446-914

- 전화 : 031-288-0411
- 팩스 : 031-288-0405
- E-mail : maumom@gmail.com
- Website: <http://www.kagp.or.kr>

• 논문 투고시 유의사항

논문의 양식과 순서는 표지 (제목, 저자명), 영문초록, 본문(서론, 방법, 결과, 고찰), 참고문헌, 표와 그림으로 한다.

1. 투고 논문은 인쇄본 3부를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접수합니다. 이 중 심사를 받을 2부에는 표지, 본문, 초록, 표등에 저자의 이름이나 소속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 합니다. 수정한 원고도 3부를 제출합니다.
2. CD 또는 E-mail로 영문초록을 포함하여 논문인쇄본과 함께 제출합니다. 한글 혹은 MS Word로 작성하는 경우 A4용지에 두줄 간격으로 가로쓰기를 하며, 1매에 25줄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
3. 심사를 마치고 인쇄 예정인 논문은 별도의 영문 심사 위원이 영문초록을 검토하게 되며 이때 저자에게 알리지않고 영문초록이나 본문의 일부를 바꿀 수 있습니다.
4. 심사가 끝난 완성논문은 인쇄본과 함께 파일 (E-mail 가능)로 담아 제출합니다.

대한노인정신의학회 임원진

학회직책	성명	소속	E-mail	전화	FAX
이사장	조맹제	서울대학교병원	mjcho@snu.ac.kr	02-2072-3155	02-744-7241
고문	곽동일	근로복지공단 본부	ambresek_kr@yahoo.co.kr	02-2670-0513	02-2670-0469
	유계준	정신과의원	kjy0036@hanmail.net	02-332-6373	02-325-6105
	이정호	인제의대 상계백병원	leedharmas@hanmail.net	02-950-1083	02-936-8069
	박종한	대구가톨릭병원	jpark@cu.ac.kr	053-650-4785	053-623-1694
	이형영	전남의대	hylee@chonnam.ac.kr	061-331-9000	061-331-9950
	우행원	우행원신경정신과의원	hwoo123@hanmail.net	02-742-0002	02-743-8686
	연병길	한림대학교 강동성심병원	knpa@hallym.or.kr	02-2224-2268	02-487-0544
	정인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junginkwa@hanmail.net	02-818-6738	02-852-1937
	오병훈	연세대학교 광주세브란스병원	drobh@chollian.net	031-765-0443	031-761-7582
부이사장(수석)	김도관	성균관대학교 삼성서울병원	paulkim@skku.edu	02-3410-3582	02-3410-0941
부이사장	이창욱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jihan@catholic.ac.kr	02-2268-6082	02-594-3870
차기이사장	정한용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hanyjung@schbc.ac.kr	032-621-5232	032-621-5018
총무이사	이동우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dwlee@paik.ac.kr	02-950-1083	02-936-8069
학술이사	유승호	건국대학교병원	shryu@kuh.ac.kr	02-2030-7567	02-2030-7749
기획이사	배재남	인하대학교병원	jnbae@inha.ac.kr	032-890-3592	032-890-3580
교육이사	이동영	서울대학교병원	selfpsy@snu.ac.kr	02-2072-2205	02-744-7241
홍보이사	김기웅	분당서울대학교병원	kwkimmd@snu.ac.kr	031-787-7432	031-787-4058
국제이사	한창수	고려대학교안산병원	hancs@korea.ac.kr	031-412-6548	031-412-5144
간행이사	김성윤	울산대학교 서울아산병원	sykim@amc.seoul.kr	02-3010-3417	02-485-8381
보험이사	최종혁	국립중앙의료원	jhc56@hanmail.net	02-2260-7292	02-2268-5028
수련이사	홍창형	아주대학교병원	antiaging@ajou.ac.kr	031-219-5185	031-219-5183
감사	신영민	서울특별시립 북부노인병원	knhnp@hanafos.com	02-2036-0208	02-2036-0209
	오강섭	성균관대학교 강북삼성병원	ks2485@lycos.co.kr	02-2001-2481	02-2001-2211

대한노인정신의학회 공고

대한노인정신의학회보는 회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과 함께 회원들의 다양한 정보 욕구를 수렴하는 장으로 만들어가려 합니다. 회원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내용들을 아래의 주소로 보내주시면 홍보위원회에서 검토 후 게재하겠습니다.

- 보내실 곳 : 김기웅 홍보이사 (서울의대, 분당서울대학교 병원) kwkimmd@snu.ac.kr
박준혁 홍보간사 (제주의대, 제주대학교병원) empath0125@gmail.com

최초 패취제형 알츠하이머형 치매와 파킨슨병 치매 치료제³

(FDA 승인-2007년 7월 6일⁴, KFDA 승인-2007년 11월 20일³)



- 1일 1회 부착⁵
- EXELON 효능을 24시간 지속 전달²
- GI 부작용의 발현을 현저히 감소⁶
- 환자 및 보호자가 쉽게 따를 수 있는 치료 스케줄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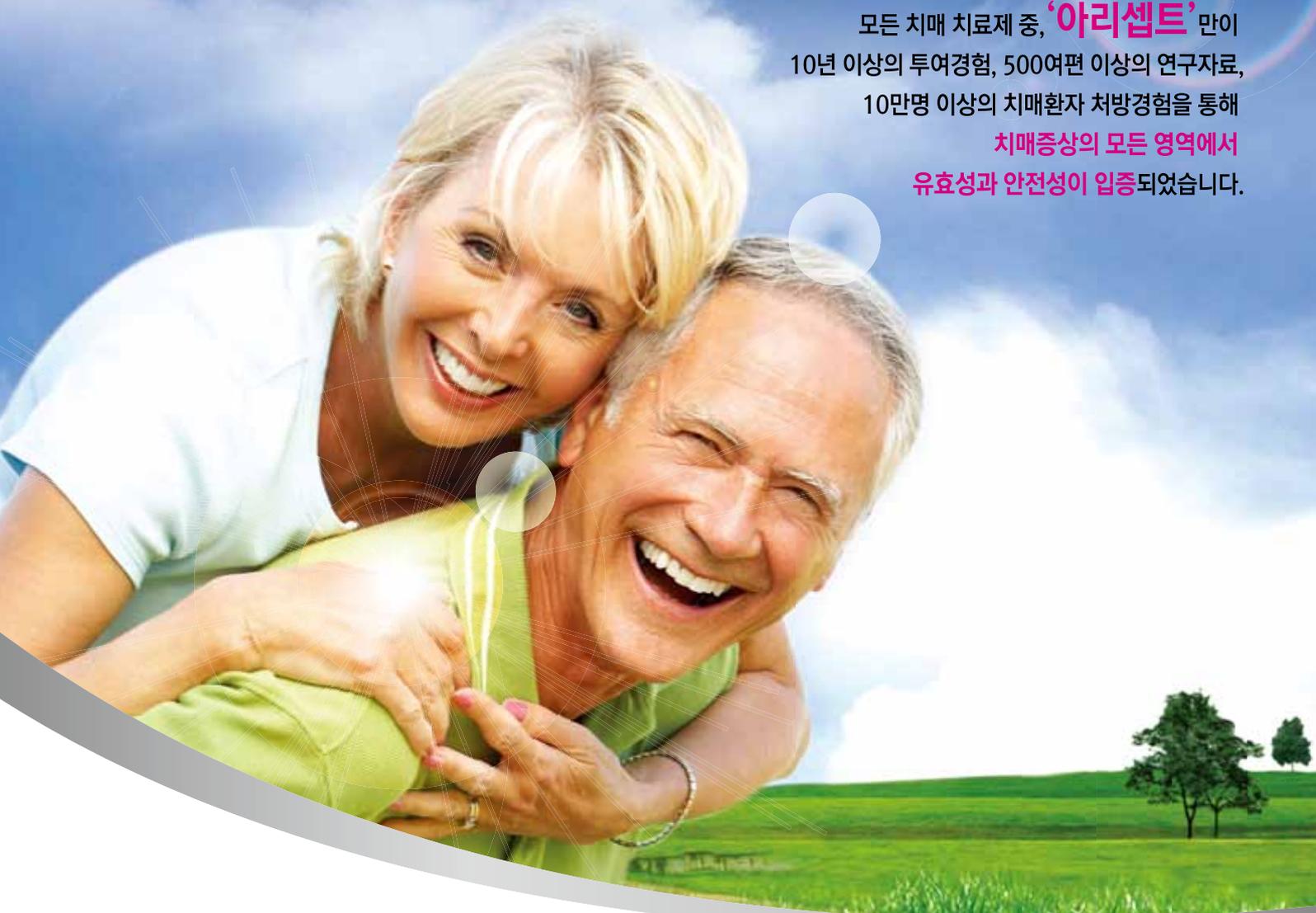
Continuous delivery¹. Continued reassurance²

Reference 1. Lefevre G, Sedek G, Jhee SS, et al, Pharmacokinetics and pharmacodynamics of the novel daily rivastigmine transdermal patch compared with twice-daily capsules in Alzheimer's disease patients, Clin Pharmacol Ther, 2008;83(1):106-114 2. Winblad B, Grossberg G, Frolich L, et al, A 6-month,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study of the first skin patch for Alzheimer disease, Neurology, 2007;69(suppl1):S14-S22, 3.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4. U.S. Food & Drug Administration 5. 제품설명서, Novartis Korea, 2007, 6. Winblad B, Cummings J, Andreasen N, et al, A six-month double-blind, randomized, placebo-controlled study of a transdermal patch in Alzheimer's disease-rivastigmine patch versus capsule, Int J Geriatr Psychiatry, 2007;22(5):456-467, 7. Winblad B, Kawata AK, Beuslerien KM, et al, Caregiver preference for rivastigmine patch relative to capsules for treatment of probable Alzheimer's disease, Int J Geriatr Psychiatry, 2007;22(5):485-491.

엑셀론 패취 5, 10 (리바스티그민) • 주성분: 리바스티그민 • 효능효과: 경도 내지 중등도의 알츠하이머형 치매 또는 파킨슨병과 관련된 치매의 대증적 치료 • 용법용량: 투여 개시하거나 중단 후 투여를 재개하는 경우 1일 1회 엑셀론 패취 5로 시작한다. 최소 4주 투여 후 내약성이 좋은 경우 권장 유효 용량인 엑셀론 패취 10으로 증량한다. 6MG~12MG 용량의 엑셀론 캡슐 또는 현탁액을 투여받은 환자는 패취 10으로 전환할 수 있다. • 금기: 이 약의 주성분인 리바스티그민, 다른 카바메이트 유도제 또는 이 약의 다른 첨가 성분에 과민증 환자, 중증의 간기능 손상 환자 • 경고 및 주의: 투여가 수일 이상 중단되었다면 패취 5에서 투여를 재개하여야 한다. 구역 및 구토 등을 포함한 유의한 위장관계 이상반응은 권장용량을 초과하는 용량에서 보고되었다. 다른 콜린성 약물과 같이 리바스티그민은 추체외로증상을 악화시키거나 유도할 수 있고, 파킨슨병 치매 환자들에서 파킨슨증(특히 전전의 악화)이 관찰되었다. 패취의 용량은 일정한 간격으로 증량되고, 투여가 수일 이상 중단되면 가장 낮은 용량으로 투여를 재개한다. 투여하는 동안 환자의 체중을 모니터링 해야 한다. 다른 콜린성 약물과 같이, 동기능부전증후군 전도 장애(동방 차단, AV 차단), 위산이저장 장애, 호흡기 질환의 악화, 비뇨기 질환이 있는 환자 및 발작의 소견이 있는 환자에서 주의 한다. 임상적으로 유의한 간기능 장애 및 체중이 50KG 미만인 환자에서 주의한다. 일부 및 수용부에서 이 약의 안전성이 확립되지 않았다. 소아에서 투여는 권장되지 않는다. • 약물 상호작용: 마취 중에 콜린 작용 약물, 항콜린 약물, 설파닐로릴링 근이완제의 병용 투여시 주의한다. • 이상반응: 매우 흔하게: 구역, 구역, 흔하게: 식욕부진, 식욕저하, 불안, 우울, 불면, 어지러움, 두통, 설사, 호흡곤란, 복통, 국소성 피부반응(홍반, 소양증, 부종), 피로, 무력증, 체중감소, 흔하지 않게: 망상, 피부염, 심혈관 사고, 부장장애, 서맥, 심실위주기(외수축), 소화성 궤양, 위장관 출혈, 피부염, ※ 처방하시기 전, 상세 제품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Optimal treatment for dementia

모든 치매 치료제 중, '아리셉트' 만이
10년 이상의 투여경험, 500여편 이상의 연구자료,
10만명 이상의 치매환자 처방경험을 통해
치매증상의 모든 영역에서
유효성과 안전성이 입증되었습니다.



ARICEPT Reimbursement

보험적응증

- 알츠하이머 형태의 경등도, 중등도, 중증의 치매 증상
(뇌혈관질환을 동반한 알츠하이머 포함)
- 혈관성 치매증상
 - 단, 1. 전략적 뇌경색(Strategic cerebral infarction) 치매와 피질의 큰 뇌경색 후 발생한 치매인 경우에는 급여를 인정하지 아니함.
 - 2. 급성기 뇌졸중 이후 발생한 치매는 3개월 이후에 실시한 평가가 치매의 상기준에 해당할 경우 인정함.

세부 인정 기준

MMSE (Mini Mental State Exam)는 **26점 이하**이면서
CDR (Clinical Dementia Rating)은 **1-3** 또는
GDS (Global Deterioration Scale)는 **Stage 3-7**에
해당되는 경우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하여 계속 투여여부를 결정하여야함.

| 한국에자이주식회사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47-17 빌딩 레베쌍트 10층
Tel. (02)3451-5500 Fax. (02)3451-5599